

#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School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이 성 휘\*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박 정 윤\*\*

교수 김 양 희

조교수 장 영 은

조교수 어 성 연

Dept. of Family Welfare &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

Master : Lee, Seong-Hwi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Professor : Kim, Yang-Hee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Eun

Assistant Professor : Auh, Seong-Ye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lative magnitude of effects of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compared. Data were collected from 217 children in grade 4 through 6 who were attending local child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The key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Ego-resilience and perceived family strength were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in poverty. The relatively greater effect of ego-resilience implied that programs for children in poverty need to focus on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r coping strategies designed to enable children from disadvantaged environments to deal with stressful events and to promote their ego-resilience. Additionally, the recovery or enhancement of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will be effective at protecting and solving various adaptive problems that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may experience at school.

---

▲주요어(Key Words) : 빈곤가정 아동(low-income family),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

\* 주 저 자 : 이 성 휘 (E-mail : misi10233@naver.com)

\*\* 교신저자 : 박 정 윤 (E-mail : pjy690103@hanmail.net)

## I.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성장 중심에만 집중되어 적절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빈부격차를 존속 또는 확대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부와 불로소득 획득 기회 및 능력이 소득계층 간, 권력계층 간, 지역 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분배 및 빈곤문제의 개선을 지연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급작스런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빈곤층이 급증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2006년 8월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716만 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51만 명으로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빈곤층의 급증은 빈곤에 노출되는 아동이 양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IMF 전후 아동빈곤율을 살펴보기 위해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아동 1,157만 명중 약 10%인 110만 명 정도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전체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9.8%로 추정되고 있다(류연규·최현수, 2003).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가정환경은 빈곤으로 인해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과 심리·정서적 지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양육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빈곤가정 아동은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험에서의 성인과는 다른 영향을 받으며,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유사한 위기환경 속에서 학교 또는 사회에 잘 적응하며, 학업성취가 높으며,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자체가 아동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문제아동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아동 자신 개인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기환경 내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김옥선 등, 2005; 박종률, 2000; 유성경, 2000; 이유미, 1999)에서 밝혀진 위기환경에서 아동적응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변인으로 가족건강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몇몇 연구(박종률, 2000; 유성경, 2000; 이유미, 1999)는 가정이 최초 교육의 장으로써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안전이나 적절한 보호에 소홀한 신체적 방임과 무관심 및 애정소홀 등의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적 적응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며, 가정에서 발달된 심리 및 정서, 신체, 지적능력은 학교에서

발현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응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가족의 강점인 가족건강성 관점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을 효율적 환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요인인 자아탄력성은 199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변인으로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위험과 스트레스 연속선상에 있는 빈곤가정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김옥선 등(2005)의 연구, 양주애(2005)의 연구만 이루어졌다. 김옥선 등(2005)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반가정 아동이며, 세변인의 경향성과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에 그치고 있어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중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주애(2005) 또한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중산층 이상의 가정 아동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제한되고 있으며(김옥선 등, 2005; 양주애, 2005), 빈곤가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의 그들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개인적, 가족적 강점을 찾으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안정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빈곤가정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즉, 빈곤가정 아동의 성장발달을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아동 개인자원 개발과 가족의 자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빈곤이라는 고위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잘 극복하고 적응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을 검토함으로써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비했던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건강한 가족과 탄력적인 개인과 학교적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한 가족, 탄력적인 개인 요인의 개선방법이 학교적응을 높이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문제를 예방·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빈곤가정에 가족복지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빈곤가정에 대한 이해

빈곤에 대한 그 기준과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정은희(2002)의 연구 외에 다수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하고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호 등(2004), 김순규(2006), 권미나(2007)의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가정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저소득)까지 포함하여 빈곤 가정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빈곤가정 아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이 차상위층을 빈곤에 포함하는 이유는 수급권 가정만으로 규정할 경우, 수급권 가정으로 책정되지는 못 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이 미약하여 여전히 빈곤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김순규, 2006). 빈곤이 주는 부정적인 큰 영향 중의 하나는 세대반복이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김대일, 2000)을 볼 때도 빈곤의 세대반복 양상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빈곤가정 아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빈곤가정 아동은 적절한 성인의 보호와 양육이 결여된 탓에 취학 중단, 학습부진, 학습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낮은 학업적응도와 학습습관은 학업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경은, 2001). 또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이 항상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 내 아동들은 심리적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백정재, 1996; Huston, 1991), 이로 인해 우울, 낮은 자존감, 긴장, 불안감 등을 나타낸다(McLeod & Shanahan, 1993). 행동상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생활습관의 부재,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행동이 보고되고 있다(민경화, 2000). 기존 연구와 달리 문제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어 빈곤가정 아동을 보는 시각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수정, 2008; 김희성, 2002; Saleebey, 1992). 관점의 변화는 동일 문제인

빈곤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이며 긍정적 측면의 연구가 미미한 실정임으로 강점 관점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강점으로서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

학교는 아동이 사회적응을 배우는 첫 장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김선미, 2006). 학교적응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학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있다(이점순, 2006). 즉, 학교적응은 아동이 변화되거나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정의하기보다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은 교사, 수업, 친구, 학교환경과 생활에 대한 태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창희 분류와 동일한 교사관계, 수업태도, 친구관계, 학교규칙으로 학교적응 영역을 분류하였다.

학교적응은 초등학생의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가장 친밀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김옥선 등, 2005).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지선(2007)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아동 스스로의 내적 변인이 환경변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여, 아동 내적변인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옥선 등(2005)의 연구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데에는 가족건강성보다 개인관련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정(2007)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부모애착보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변인이 빈곤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별로 개인, 가족, 사회환경적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 일반가정 아동·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이 학교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지만,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빈곤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에 대한 결과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가정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s)이란 삶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이소영, 2007). 이러한 강점은 개발이 가능하고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할 때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유영주, 2004). 다양한 가족관련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차적 환경이며, 아동은 가족을 통해 사회화를 배우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

국외에서는 1962년에 건강가족에 대한 선구자인 Otto(1962)의 “What is Strong family?”라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 계속해서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1971년에 Stinnett(1971)와 Saue(1971)는 Nebraska 대학에서 가족학자들이 지적한 건강가족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유영주, 2002) 1975년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 정신건강센터의 외래 및 응급서비스 관리자인 Branhill(1975)은 가족치료이론에서 개발된 건강가족체계의 개념을 검토하여 통합하고 건강가족의 기능화 영역을 발견하였다(경지영, 2000, 재인용). 현재의 외국의 건강성 연구는 가족건강성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넘어,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복지에 있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문적으로 밝혀내는 가족학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치료(Powell, Batsche, Ferro, Fox, & Dunlap, 1997), 사회복지(Chapin, 1995; Early, 2001; Early & GlenMaye, 2000; Saleebey, 1992), 아동복지(Friesen & Poertner, 1995)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임정아, 2005).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효정(2008), 김윤경(2008), 박민주(2006), 이지형(2006), 안인영(2005), 임정아(2005) 등의 최근 몇 국내 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박민주의 연구는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정아(2005)의 연구는 인문계, 실업계로 나뉘어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 고정은(2001), 권미나(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라는 개념 대신, 가족기능, 보호요인, 가정환경, 가족체계,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로는 유일하게 김옥선 등(2005)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김옥선 등(2005)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중산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의 건강성이 위협받을 잠재성이 높은 빈곤 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 내의 관계 및 기능에 대해 지각하는 전반적인 ‘건강함’의 정도가 이 시기에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여겨지며,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그 영향의 중요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용어는 Garmezy(1983)와 Rutter(1985)가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잘 기능할 뿐더러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특징지을 때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에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Block & Block, 1980)이라 정의한다.

자아탄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적응능력인 것이라 볼 때, 이는 일반가정 아동에게 보다 학대, 빈곤, 구조적 결손가정 등 환경요인에서 역경이 있는 경우 더욱 필요한 성격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면에서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지은, 2003).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학업에 있어 지적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김선정, 2007; Klohnen, 1996).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도인데, 이수현·최혜림(2007)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시험불안이 생겨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며, 융통성있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교생활의 적응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현숙(1993)은 이혼 가정의 아동 적응에 관해 연구한 결과, 스스로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많이 이용할수록,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은(2000)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 정서성과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이해승(2004)에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김옥선 등(2005)도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의 전체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변인으로써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빈곤가정 아동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수집방법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가구 아동을 빈곤가정 아동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빈곤가정 아동은 사회복지기관

의 방과후교실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 지역 안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의 방과후교실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빈곤가정 아동인 초등학교 4~6학년 2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222부였으며, 이 중 기재가 부실한 5부를 제외하여 총 21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빈곤가정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청

<표 1-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동변인					
변 인	집 단	빈도(%)	변 인	집 단	빈도(%)
성별	남아	114(52.5)	형제순위	첫 째	68(31.9)
	여아	103(47.5)		첫째 아님	145(68.1)
학년	합계	217(100.0)	친한 친구 수	전혀없음	13(6.1)
	4학년	76(35.7)		1~4명	118(55.4)
	5학년	74(34.7)	5명 이상	82(38.5)	
	6학년	63(29.6)	아동 종교유무	유 무	145(68.1) 68(31.9)

\*결측치를 제외하였으므로 각 변인들의 총계는 상이함.

<표 1-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변인						
변 인	집 단	빈도(%)	변 인	집 단	빈도(%)	
수급 여부	국민기초 수급권자 비수급권자	60(27.9)	부(父)의 직업	생산·농림어업	21(11.1)	
		155(72.1)		서비스·판매직	70(37.0)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	상위	17( 7.8)		모(母)의 직업	사무·반전문기술직	82(43.4)
	중상위	37(17.1)			관리·전문직	11( 5.8)
	중위	135(62.2)	무 직		5( 2.6)	
	중하위	26(12.0)	생산·농림어업		19(10.1)	
가족 구조	핵가족 확대가족 기 타	147(67.7)	부모의 종교	유 무	134(62.6) 80(37.4)	
		10( 4.6)		부-아동간의 대화방법	함께 이야기 잘함	106(51.7)
		60(27.6)	주로 아버지 이야기		39(19.0)	
부(父)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모 립	10( 4.6)	모-아동간의 대화방법		주로 아동 이야기	24(11.7)
		59(27.2)		대화 거의없음	36(17.6)	
		60(27.6)		함께 이야기 잘함	151(75.5)	
모(母)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모 립	88(40.6)	부모-아동간의 대화시간	주로 어머니 이야기	25(12.5)	
		16( 7.4)		주로 아동 이야기	8( 4.0)	
		67(30.9)		대화 거의없음	16( 8.0)	
		46(21.2)		10분 미만	35(16.1)	
	88(40.6)			10분~30분 미만	71(32.7)	
				30분~1시간 미만	53(24.4)	
				1시간이상	28(12.9)	
				2시간이상	30(13.8)	

\*결측치를 제외하였으므로 각 변인들의 총계는 상이함.

(2007)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인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로 총 10개 지역이었으며, 지역내에 위치한 총 15기관을 유의표집하였다.

<표 1-1, 1-2>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아동변인과 부모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 변인을 살펴보자면, 성별은 남아 114명(52.5%), 여아 103명(47.5%)이다. 학년별로는 4학년 76명(35.0%), 5학년 74명(34.1%), 6학년 63명(29.0), 무응답이 4명(1.8%)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첫째'인 경우와 '첫째가 아닌'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째가 68명(31.3%), 첫째가 아닌 경우 145명(68.1%)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수는 '1~4명'인 경우가 118명(55.4%)이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인 경우가 82명(38.5%), '전혀 없는 경우'가 13명(6.1%)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종교유무는 '있는 경우'가 145명(68.1%), '없는 경우'가 68명(31.9%)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부모 변인으로 지역아동센터 또는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조사하였고,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조사했으며, 가족구조를 통해 구조적 결손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은 60명(27.6%), 비수급권 가정의 아동은 155명(71.4%)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빈곤가정으로 수급을 받는 가정이 3분의 1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위'가 135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60%이상이 '중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이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임을 볼 때, 아동들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솔직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구조는 '핵가족'이 147명(67.7%), '확대가족'이 10명(4.6%), '기타'가 60명(27.6%)이었다. 기타에는 친지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부(父)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0명(27.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59명(27.2%), '중졸 이하'가 1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67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46명(21.2%), '중졸 이하'가 16명(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해 잘 모르는 아동이 88명(40.6%)로 많았으며, 교육수준에 대해 꺼리거나 모르면서도 짐작으로 응답한 아동이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의 다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을 밝혀둔다.

부모의 직업은 먼저, 부(父)의 직업은 '사무·반전문기술직'

82명(43.4%)이, 모(母)의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이 74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134명(62.6%), 없는 경우가 80명(37.4%)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아동간의 대화방법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아버지와 대화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잘함'이 106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 아동간의 대화방법도 '함께 이야기를 잘함'이 151명(69.6%)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 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아동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10분~30분 미만'이 71명(32.7%)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미만'이 53명(24.4%)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가족건강성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을 형성케 하는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가족으로,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하여 총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lpha$ 를 살펴본 결과, '가족원간의 유대' 요인은 .90,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요인은 .85,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요인은 .65,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요인은 .83, '가족건강성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Block, 1982)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4)이 번안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4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a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칙을 수용하고, 학교수업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사나 또래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켜 적절하고 만족하는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유윤희(1994)가 32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3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abach's  $\alpha$ 를 살펴본 결과, '교사관계' 요인은 .63, '교우관계' 요인은 .77, '수업태도' 요인은 .69, '학교규칙' 요인은 .64, '학교적응 전체'는 .86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관련변인의 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로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평균이 3.48점으로 1~5점의 범위에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4개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던 것과 일치하며(김옥선 등, 2005), 연령대가 다른 청소년기의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연구(권대희, 2003)에서와도 연구 결과가 일치한다.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의 가족 건강성을 평가한 최선희(1999)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애정·사랑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임정아(2005)의 연구에서도 감사·애정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사·애정이 높게 나오는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에 대한 시각이 변화됨으로써 부모를 의지해야 할 대상보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로 2.8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은 평균이 3.32점으로 1~5점 범위에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미나(2007), 허남순 등(2005)의 연구에서, 빈곤가정 아동들이 열악한 학교환경 속에서도 일반가정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4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교우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 학교규칙, 수업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영향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표 2> 관련 변인의 경향성

변인	통계치	최저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가족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1.60	5.00	3.59(.7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38	5.00	3.46(.73)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1.50	5.00	3.48(.6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1.67	5.00	3.38(.67)
	전 체	1.70	4.97	3.48(.64)
아동의 자아탄력성	1.43	4.00	2.88(.48)	
학교적응	교사관계	1.75	4.63	3.34(.59)
	교우관계	1.00	5.00	3.44(.76)
	수업태도	1.25	5.00	3.19(.64)
	학교규칙	1.50	4.88	3.31(.59)
	전 체	1.94	4.71	3.32(.50)

응답가능한 범위: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1~5점, 자아탄력성 1~4점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건강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학교적응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성별	0.20	0.22*	0.14	0.15*	0.10	0.12
형제순위(첫째여부)	0.06	0.06	0.01	0.01	-0.03	-0.03
부모종교유무	0.00	0.00	0.02	0.02	0.04	0.05
아버지 학력수준(연한)	0.04	0.24*	0.03	0.17*	0.03	0.17*
어머니 학력수준(연한)	-0.05	-0.29**	-0.03	-0.21*	-0.03	-0.16*
아버지와 대화방법(상호간 대화유무)	0.14	0.11	0.04	0.03	0.06	0.05
어머니와 대화방법(상호간 대화유무)	0.29	0.13	0.19	0.09	0.06	0.03
대화시간	0.00	-0.04	0.00	-0.05	0.00	-0.06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0.09	0.14	0.03	0.05	-0.03	-0.05
친한 친구 수	0.14	0.48***	0.11	0.37***	0.08	0.28***
가족건강성			0.38	0.49***	0.25	0.32***
자아탄력성					0.43	0.41***
상수	2.33		1.43		0.96	
R <sup>2</sup>	.36		.56		.66	
$\Delta R^2$			.20 .10			
F	5.49***		1.20***		15.21***	

1) 성별: 0=남, 1=여 2) 형제순위: 0=첫째, 1=첫째아님 3) 대화방법: 0=대화함. 1= 대화없음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의 사전 분석으로,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들의 분산확대인자(VIF)가 1.09~1.79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도 1.73 로 2에 가까워 잔차간의 자기상관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총 18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성별, 형제순위, 부모종교유무,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와의 대화방법, 대화시간,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친한 친구 수를 투입하였다. 여기서 형제순위는 첫째인 경우와 첫째이지 않은 경우를, 대화방법은 어느 한 쪽이 많이 대화할 지라도 상호간 대화하는 경우와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모델1에서는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동시 투입한 결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beta=.22$ ), 아버지 학력수준( $\beta=.24$ )이  $p<.05$ 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어머니 학력수준( $\beta=-.29$ ,  $p<.01$ ), 친한 친구 수( $\beta=.48$ ,  $p<.001$ )로 나타나, 친한 친구 수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학교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1에 가족건강성을 추가한 후에는 설명력이 36%에서 56%로 20%증가하였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가족 간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인식할수록 더 나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beta=.49$ ,  $p<.001$ ). 빈곤가정 아동이 여아이고( $\beta=.15$ ,  $p<.05$ ), 아버지의 학력수준( $\beta=.17$ ,  $p<.05$ ) 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한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beta=.37$ ,  $p<.05$ ) 아동의 학교적응성 점수는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낮을수록( $\beta=-.21$ ,  $p<.01$ ) 아동의 학교적응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건강성에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였는데, R<sup>2</sup>가 .56에서 .66으로 증가해 그 설명력의 크기가 10% 증가하였다. 즉, 아동이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2$ ,  $p<.001$ ).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형제순위, 부모종교유무, 부모와 대화방법, 대화시간,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빈곤 가정 아동의 부모종교유무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경은(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성별과 형제순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일치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면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 $\beta=.41$ ), 가족건강성( $\beta=.32$ ), 친한 친구 수( $\beta=.28$ ), 아버지 학력수준( $\beta=.17$ ), 어머니 학력수준( $\beta=-.16$ )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66%를 가진다. 가족건강성이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박민주(2006) 및 양순미·유영주(200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옥선 등(2005)의 선행연구도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가족건강성보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 V. 논의

### 1. 요약 및 논의

우리 사회의 구조적 급변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빈곤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빈곤은 아동에게 신체적 발달, 심리·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세대전이가 되므로, 더 이상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전체에 대한 접근과 개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초기연구는 빈곤한 환경 가운데서 드러나는 문제중심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왔으나 빈곤가정에 대한 연구들이 거듭되면서, 최근에는 문제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강점중심적인 시각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빈곤가정 아동 중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도 강점중심적 관점에서 빈곤가정 아동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을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인 아동이 60명이었으나,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이 중하위 이하라고 응답한 아동은 28명에 불과하다. 217명 중 189명이 중위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실제의 가정형편과는 다르게 아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들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변시선으로 인해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아동간의 하루 동안 평균 대화시간은 48.8%에 해당되는 106명의 아동이 30분 미만으로 대화함을 알 수 있는데, 생계유지형 맞벌이이기 때문에, 육체는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가사 일까지 도맡고 있어 피로를 쉽게 느끼고 심리적 부담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아동에게 대화를 할 여유가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모와의 대화부족은 아동을 비행행동의 증가와 공격적 행동, 우울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민감할 시기인 아동기에 부모와 정서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정상적 발달을 하기가 어렵다. 부모와 자녀간의 언어적인 대화 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성연(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노성향(1994)의 연구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인 불안과 우울, 비행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여 의견을 같이 한다.

둘째,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빈곤가정 아동의 세 변인들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가족건강성 수준은 3.48점, 자아탄력성 평균점수는 2.94, 학교적응의 평균은 3.32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희경(2005)의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평균점수 3.95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빈곤가정아동에 가정에서는 상호간의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을 갖거나 의사소통의 결핍,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교실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기관이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가정 아동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 중에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희경(2005), 권대희(2003), 윤세은(2000), 윤연정(2007), 임정아(2005)의 연구들과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가족원의 가치체계 공유에 해당되는 문항 중에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원간의 관심사와 취미가 같을수록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된다(윤연정, 2007). 따라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빈곤가정의 부모는 맞벌이하거나 함께 취미를 나눌 경제적, 심리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빈곤가정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거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을 활성화하거나 가족캠프 가기, 또한 외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신문 만들기나 같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해 준다면, 동시에 가족건강성의 회복과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적응 증진에는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개인적, 가족, 사회환경적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사회환경적 변인이 가장 많은 관련을 보인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오히려 일반가정의 아동, 청소년,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옥선 등, 2005; 김선정, 2007; 이지형, 2007)과 일치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 주위환경에 민감하며 주변에 따른 변화에 자신을 비추어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시기가

므로 빈곤이라는 어려운 상황은 다른 시기보다,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빈곤가정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아동의 시기에 청소년이 되기 전에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더욱 중점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빈곤가정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빈곤이라는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에 의해 학교적응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자원인 자아탄력성의 개발과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과 친한 친구수, 부모의 학력수준이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기는 다른 나이에 비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면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아동기는 친구의 수로 대인관계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가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임정아(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50%에 달하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35%에 달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부학력 특성상 남편의 학력이 아내의 학력보다 높다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학력수준이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구대상이 빈곤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일반가정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부모의 학력수준은 양부모 모두 대졸 이상인 가정이 35% 이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정이라는 사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IMF이후 많은 가정경제가 무너져 부모의 학력수준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후, 빈곤탈출율이 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그 후에 많은 가정이 가정경제를 일으키지 못한 채 저소득층으로 남아있었거나 다시 한번 2008년의 경제불황을 맞아 빈곤이 굳어져 빈곤가정으로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35%가 대졸 이상임에도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7%만이 반전기술직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고, 31%가 직업을 갖고있지 않음으로 설명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

하고, 가정의 경제상태도 빈곤한 상황에 놓인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인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어머니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추후에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임에도 빈곤가정인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로써 개인관련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관련변인 가족건강성이 빈곤가정의 학력기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추후에 빈곤가정 아동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때, 무엇보다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간 대화의 소재꺼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가족과 주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 문제해결능력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위협에 유연하게 인내를 갖고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2. 제언

본 연구가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여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짐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가정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지역을 조사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서울 내의 저소득층이 많은 10개 지역에 위치한 방과후교실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빈곤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나이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안에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을 함께 고려해 보거나 부모-자녀간의 대화관찰, 교사가 응답한 학교적응을 알아보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방과후교실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빈곤가정 아동들이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빈곤가정 아동의 실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방과교실과 공부방은 빈곤가정

아동에게 직·간접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이 높게 측정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비교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가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유의한 결과를 보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한 주제를 놓고 부모와 아동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 가족원의 좌우명을 통해 각자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등 서로 믿고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빈곤이 단기빈곤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김효진(2008) 및 Brooks-Gun과 Duncan(1994)이 보고한 바 있으며, 아동기 초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기 후기에 경험하는 빈곤보다 학구적 성취에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빈곤가정에 있어서 빈곤탈출율은 6%에 불과하여, 빈곤가정의 아동들 대부분은 장기빈곤에 시달리고 있을 우려가 있고, 그 이유는 빈곤의 세습으로써, 아동기 빈곤 경험이 만들어낸 낮은 학업성취 및 학교실패, 신체건강상태 저하 및 질병, 높은 문제행동 및 사회부적응은 성인기의 생산성 및 노동능력을 저하시켜,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기회의 박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기회박탈이 성인기에 후유증으로 남아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양적연구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경지영(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 정도와의 관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경은(2001).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대회(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나(2007). 빈곤아동의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일(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KDI 연구보고서 2004-01.

김선미(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정(2007).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회**, 25, 9-34.

김순규(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5).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회**, 19(3), 761-777.

김윤경(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200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가족의 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진(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분석. **보건복지포럼**, 2008(5), 33-42.

김희성(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성향(199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규·최현수(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135-165.

민경화(2000).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과 일반 빈곤지역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주(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률(2000).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접근에 관한 연구: 평택지역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백정재(1996). **빈곤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양주애(2005).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호·배내운·이금섭·최기창·이미란(2004). **경제적 빈곤이 아동 학교생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311-334.
- 이소영(2007). **가족건강성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최혜림(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2), 321-327.
- 이유미(1999).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점순(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형(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한국청소년학연구**, 11(1), 407-427.
- 임정아(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2).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 서울특별시청 통계. <http://www.seoul.go.kr>
- 보건복지부 통계. <http://mohw.go.kr>
- Block, J.(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H. & Block, H.(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rooks-Gunn, J., Kleanov & Duncan, G. J.(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Garnezy, N.(1983). **Stressors in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43-84. NY:McGraw-Hill.
- Huston, A. C.(1991).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McLeod, J. D & Shanahan. M. J.(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aleebey(200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ed*. Boston.

접수일 : 2009년 01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2월 09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26일